

농림수산식품부

배달용 치킨에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월 24일 국무총리 주재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확대방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년 8월 5일부터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가 음식점 면적과 관계없이 65만 개 전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현재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는 100㎡ 이상의 음식점에서,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의 원산지 표시는 모든 음식점에서 적용되고 있다.

한편 오리고기, 흑염소고기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막걸리를 비롯한 주류, 천일염과 같은 식용소금 그리고 배달용 치킨에도 처음으로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는 배달용 치킨, 주류, 식용소금의 유통소비패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들 품목의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부정행위는 상당부분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출처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장유통질서를 바로잡음으로써 생산자도 보호하기 위해 1994년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한편 이번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는 농식품부 식품안전시행 계획 2009년도 추진실적과 2010년도 계획도 함께 심의·확정한 바 있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각 부처에 분산된 식품안전 기능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2008년도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위원회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2010년 축산식품 안전관리 대책 발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은 국민들이 축산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2010년 축산식품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추진 방향은 크게 3가지로 ▲첫째, 제도 선진화 및 안전한 유통질서 확립 ▲둘째, 위해사고 선제적 대응 및 정보교류 강화 ▲셋째, 축산물 안전성 검사 및 연구 강화이다.

이번에 안전관리 대책의 선진화를 기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도입하거나 강화하는 사항을 분야별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축산물위생관리 제도 선진화 및 안전한 유통질서 확립
 - 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능력 제고 및 관리강화를 위한 검사자 교육의무화와 검사기관지정 유효기간제(3년)를 도입한다.
 - * 관련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국회 계류 중)
 - 나. 치즈류에 나트륨 등 건강관련 성분의 표시 의무화 및 표시기준을 Codex 등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어 나갈 계획이다.
 - *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검역원 고시)
 - 다. 알가공품의 위생관리를 위한 비살균액만의 기준규격을 설정하고, 2010년 상반기 중 계란집하업에 HACCP을 적용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발할 예정이다.
 - * 축산물의 성분규격 및 가공기준 등 개정(검역원 고시)
 - 라. 고의상습적인 위생범죄 방지를 위한 축산물안전관

리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고, 평시 위생감시와 별도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취약 업종별·시기별 기획감시를 실시한다.

* 기획감시 : 식중독사건, 이물질사건 등 축산물식품사고 취약분야 중점

2. 위해사고 선제적 대응 및 국내외 정보교류 강화

가. 금년도에는 위해성 평가업무에 역점을 두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화학물질은 록사손, 아세페이트, 브롬화난연제 3종에 대해, 미생물은 축산물 중 황색포도상구균 등 2종과 식육가공품 중 리스테리아 균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다.

나. 축산물 위생감시교육홍보 활동에 소비자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 협력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축산물 위생관리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우리나라 축산식품의 수출 촉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 베트남 등 14개국에 참여하는 아시아 축산물 안전관리 세미나 개최

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회의 참여를 확대(11분과 21명 참석예정)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하고 상호정보교류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3. 축산물 안전성 검사연구 및 도축검사 역량 강화

가. 국내 축산식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현재 104종에서 122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수입 및 국내산 식육가공품에 대한 GMO 혼입여부 100건 및 방사선 조사여부 100건, 잔류물질과 병원성 미생물 9,380건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나. 축산식품 산업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해물질 동시분석법, 록사손 등 10종의 위해 우려물질에 대한 검사방법, 병원성미생물의 정량분석법 및 축산식품 내 유전자변형체(GM) 검사기법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 축산식품 안전관리의 핵심 중 하나인 도축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검사관의 역량 향상을 위한 현장 실습교육 실시와 해외 도축병리 및 HACCP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

가금분야 전문가 협의회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3월 25일 분야별 협의체 가금분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문제되고 있는 현안 질병의 피해저감을 위한 대응연구 방안을 협의했다.

분야별 협의체는 수요자 측면에서의 현장애로기술 발굴과 연구사업 수행결과의 현장적용 효율을 강화할 목적으로 2005년 8월에 구성되었으며, 가금분야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조류질병과가 주관하고 있는 분야별 협의체이다.

이날 전문가 협의회에서는 계두(FP), 괴사성장염(NE), 닭세망내피증(RE), 닭마이코플라스마병 등 최근 야외에서 문제되고 있는 면역 억제성 질병들에 대한 대응연구 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최근 일부 지역 산란계

에서 다발하고 있는 계두발병 원인이 야외 계두 바이러스에 면역억제를 일으키는 닭세망내피증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삽입되어 있어 계두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질병피해 저감을 위한 국내 유행 계두바이러스의 특성 및 예방법 연구 필요성을 논의했다.

또한 무항생제 사육 육계농가가 늘어나고 면역억제 유발 질병의 초기 감염으로 과사성장염 발병률이 육계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국가모니터링 검사체계 구축과 대응 연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닭마이코플라스마 감염증과 관련하여 최근 마이코플라스마 갈리셉티쿰(MG) 발생은 줄어들고, 마이코플라스마 시노비애(MS) 발생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모니터링 검사방안과 백신개발 또는 적용 등 대응연구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본 회의를 주재한 권준헌 조류질병과장은 "이날 협의나 제안된 내용들은 양계업 현장에서 시급히 문제해결을 필요로 하는 사안들로 향후 연구사업을 통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I 새로운 진단키트 현장적용 시범사업 실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작년에 새롭게 개발된 조류인플루엔자(AI) 유전자 진단키트를 시범사업용으로 일선 가축방역기관에 제공하고, 지난 3월 9일 전국 시·도 방역기관 진단 담당자 30명을 대상으로 유전자 진단키트의 기본원리, 유전자 진단키트를 이용한 실습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도 방역기관에서 시범용 AI 유전자 진단키

트를 사용한 결과 일치율, 검사능력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앞으로 일선 가축방역기관에서 활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검역원의 인력난과 과중한 검사업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한편, 현장방역을 강화하고 지방 방역기관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전수한 진단키트는 4종의 AI(type A, H5, H7, H9)를 진단할 수 있는 것으로 약 5시간이 소요되며, 이 키트를 이용할 경우 이동통제 등 방역조치가 조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검역원 관계자는 "AI 바이러스는 유전적으로 변이가 심해 진단에 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진단키트를 이용하여 확진은 어려우며,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 반드시 검역원의 정밀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검역원에서는 금년 6월 말 정도에 시범 보급된 진단키트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관련 협의회를 개최하여 하반기에 정식보급 등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가축 항생제 사용량 크게 감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수행한 '가축 및 축산물 내 주요 항생제내성 실태조사 및 평가' 사업결과에 따르면 2009년 축산용 항생제 사용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전체 축산용 항생제의 사용량은 998톤으로 2008년(약 1,211톤)에 비해 약 18%, 2001년(약 1,595톤)에 비해서는 약 37%가 감소했다.

이는 2005년부터 농림수산물부에서 추진해

온 배합사료 제조용 항생제 감축정책으로 사료에 제조하여 사용한 항생제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축산용 항생제 중 배합사료 제조용 항생제는 2009년 237톤으로 2008년(447톤)에 비해 약 47%, 2001년(766톤)에 비해서는 약 69% 감소했다.

축산용 항생제 사용량은 모든 축종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에 비해 돼지(551톤)와 닭(206톤)에서는 약 17~20%, 특히 소(63톤)에서는 약 36% 감소했다.

2009년부터 배합사료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항생제의 사용량 감소 등으로 링크스아미이드계 항생제가 2008년 대비 약 53%,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가 약 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일제제 중에서는 네오마이신(아미노글루코사이드계)이 약 7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09년 가축의 항생제 내성률(대장균 기준)에 대한 조사결과는 테트라사이클린, 네오마이신 등 항생제별로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가축의 항생제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테트라사이클린은 소에서는 예년과 같지만 돼지와 닭에서는 내성률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09년부터 배합사료제조용 항생제로 사용이 금지되어 사용량이 가장 많이 감소한 네오마이신의 경우 모든 축종(소·돼지·닭)에서 내성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프티오퍼, 세파졸린, 아목사실린/클라벤닉산, 스트렙토마이신 등 일부 항생제(4종)는 치료용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어서 2개 이상 축종에서 내성률이 다소 증가되었다. 검역원에서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황사 대처요령 리후렛 제작 배포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봄철에 많이 발생하는 황사에 의해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축과 사료 등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황사발생 시 축산농가의 대처요령을 리후렛으로 제작하여 전국의 축산농가에 배포했다.

축산농가에서는 황사발생 기상예보를 확인하면 운동장이나 방목장에 있는 가축을 축사 안으로 이동시켜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축사 내로 황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과 창문을 닫는다.

또한 야외에 있는 건초, 볏짚 등은 황사가 묻지 않도록 비닐이나 천막 등으로 덮어둔다.

황사가 지나가고 나면 축사 내·외부, 사료 급이기 및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 등에 묻은 황사를 깨끗이 씻고 소독하고, 가축이 황사에 노출되었을 때는 몸체에 묻은 황사를 털어 낸 후 구연산 소독제 등을 분무기를 이용하여 소독한다.

그리고 황사가 끝난 후 2주일 정도는 질병의 발생유무를 관찰하고, 구제역 증상과 유사한 병든 가축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관할 읍면이나 가축방역기관 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에 신고한다.

황사는 중국과 몽골의 사막과 황토지대에서 작은 모래나 황토 또는 먼지가 봄철의 강한 바람에 의해 하늘에 떠다니다가 우리나라에 날아와 떨어지는 것이며, 황사가 발생할 때에는 하늘이 뿌옇게 흐리고, 지붕이나 물건에 누런 흙 먼지가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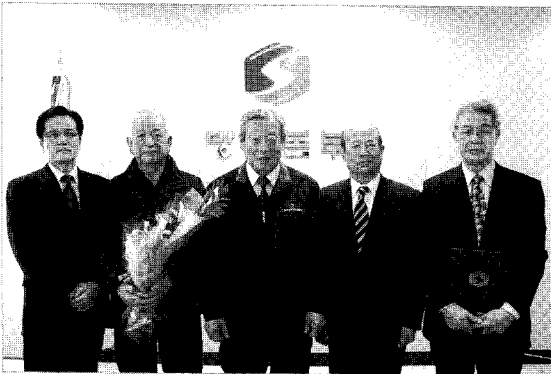
황사가 발생하면 공기 중의 미세한 먼지로 인해 가축에서 호흡기, 순환기 및 안(눈)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간 지속 시 성장지연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라승용 원장은 중국 등에서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황사에 의한 질병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축산농가에서는 관리수칙을 준수하고 철저한 소독을 당부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북 · 경북도본부장 위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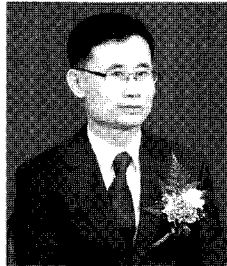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배상호)는 지난 3월 29일 충북도본부장에 조우영(63)씨, 경북도본부장에 정종식(63)씨를 각각 위촉했다.

충북도 조우영 도본부장은 서울시립대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1978년부터 가축위생시험소에서 27년간 공직생활을 역임했다.

정종식 경북도본부장은 경북대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1977년부터 가축위생시험소에서 27년간 공직생활을 역임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최형규 원장 취임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3월 4일 최형규 원장 취임식을 가졌다.

최형규(崔亨圭) 신임 원장은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서울 대학교 행정대학원 및 일본사이타마대

정책학과를 졸업했으며, 1982년 행정고시 사무관으로 농림수산물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축산정책과장, 축산물유통과장, 재정기획관, 대통령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을 거쳐 최근에는 기획조정 실장을 역임했다.

최형규 원장은 농림수산행정에 정통한 관료출신으로 주위의 신망이 높았으며, 우리나라 농업 선진화를 위해 열정적으로 일해 왔다.

그동안 공직생활에서 쌓아온 경륜을 바탕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 조직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축산물 유통 선진화에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제1회 찾아가는 축산물 HACCP 무료 기술상담 실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석희진)은 축산물 HACCP을 활성화하고, 축산물 HACCP의 적용 또는 준비하고 있는 영업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3월 23일 대전에 소재한 충남대학교 수



의과대학 대강당에서 '제1회 찾아가는 축산물 HACCP 무료 기술상담'을 실시했다.

상담 및 교육은 충청남·북도 및 대전에 위치한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보관업, 운반업, 집유업, 식육판매업, 농장 및 사료공장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40개 업체의 58명이 참가했다.

주요 상담은 축산물 HACCP의 지정, 정기심사 절차 및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의 이해를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며, 8명의 전문상담원이 1대1 형식의 맞춤형 개별상담을 실시하여 축산물HACCP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돕는데 큰 효과가 있었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은 거리 및 시간의 제약으로 내원 상담이 어려운 업체를 배려하고 민원인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등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찾아가는 축산물HACCP 무료 기술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MOU 체결 기관과의 간담회 개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은 지난 3월 19일 9층 회의실에서 2007년 6월 MOU를 체결한 국립한경대학교를 비롯해 14번째인 국립전주산업대학



교의 관계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MOU 체결 기관과의 지속적인 업무연계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MOU 체결 기관 대표들은 업체들이 축산물 HACCP 지정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방안, 축산물 브랜드사업과 HACCP을 연계하는 방안, HACCP 지정 후 사후관리 방안, HACCP 발전을 위한 교육과 공동연구 방안 등에 대해 의견개진과 관심을 표시했다.

석희진 원장은 이에 대해 "MOU 체결 기관과의 업무연계성을 위해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고 MOU 추진기관(대학)과의 지속적인 업무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해 상호협력 가능한 분야의 사업을 발굴하고 궁극적으로는 축산물 HACCP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물 브랜드 및 축산물HACCP 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은 지난 3월 9일 기준원 9층 회의실에서 축산물 브랜드 및 축산물 HACCP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축산물 브랜드와 HACCP관련 실무적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우수축산물브랜드 인증 현지실사단 9명이 참석했으며, 축산물 브랜드 및 축산물 HACCP 발전방향에 대한 기준원의 제안과 정부의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사업 배경 및 요건에 대한 석희진 원장의 설명에 이어 두 제도의 발전을 위한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되었다.

석희진 원장은 이 자리를 통해 축산물 브랜드 사업과 축산물 HACCP은 위생·안전성 부분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제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연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국자조금연구원

자조금도입백서 출판기념 모임 개최



한국자조금연구원(원장 박종수)은 지난 3월 10일 서울 양재동 소재 외교센터에서 최근 발간한 '자조금도입백서'의 출판기념 모임을 개최했다.

이번 출판기념 모임에는 그동안 우리나라 자조금제도 정착,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역임했던 농축산업계 원로인사를 비롯해 전, 현직 협회장 및

단체대표, 정부관계자, 학계, 언론계 등 1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특히 남성우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 이병모 대한양돈협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등 관련 단체장들이 축사를 통해 '자조금도입백서' 발간을 축하했으며, 김현욱, 김진영 전 국회의원, 김영진 전 농촌경제연구원장, 김달중 전 축산국장 관련 인사들이 그간의 자조금 제도 도입, 발전과정의 여정을 회고했다.

한편 한국자조금연구원은 '자조금도입백서'를 올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농축농가 및 단체 임직원 등의 교육용 교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 협회 및 자조금단체 등에 배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양계수의사회

제3대 회장에 손영호 소장 선출



한국양계수의사회 3대 회장에 반석가금진료연구소 손영호 소장이 선출되었다.

손영호 회장은 회원증가, 수의사 활동강화, 수의사 자질 향상의 기치를 내걸고 2년간 양계수의사회를 이끌어 가게 됐으며, 회원증가 및 조직력 강화를 위해 4개 지부(중부, 충청, 영남, 호남)를 결성하고 수의사회 부서를 5개부(홍보부, 학술부, 회원관리부,

재정서기부, 질병정보부)로 활동조직을 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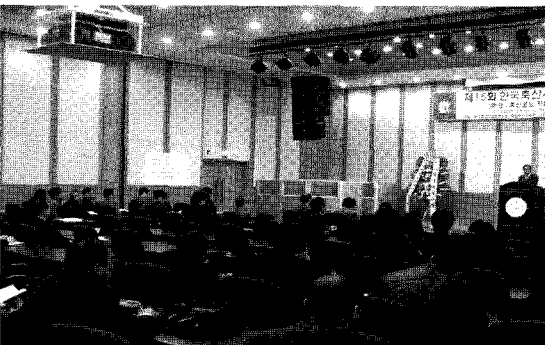
손영호 회장은 회원활동 강화의 일환으로 전국의 수의사를 대상으로 회원가입을 받고 있으며, 오는 4월 21일 세미나를 겸한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함께 일할 부회장으로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권용국 박사가 임명되었다.

손영호 소장은 건국대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전북대학교에서 수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자문위원, 역학조사위원, 분야별협의체위원, 대한양계협회 위생방역대책위원, 전북대학교양계산학협력단 HACCP 컨설팅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축산시설환경학회

축산분뇨 자원화 추진 학술대회 개최



한국축산시설환경학회(회장 양참범)와 국립축산과학원(원장 라승용)은 지난 3월 5일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에서 '축산분뇨 자원화 추진성과 및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축산분뇨의 자원화에 대한 주제를 두고 정책과 기술이 발표되어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학술행사와 아울러 축사 악취저감을 위한 바이오커텐 설치 효과 등 30편의 논문이 포스터로 발표되었고 한국축산시설환경학회 정기총회도 같이 이루어졌다.

주제발표는 총 5편으로 ▲축산분뇨 자원화 추진 정책(농식품부 축산정책과 김정욱 과장) ▲퇴액비 자원화 기술(국립축산과학원 곽정훈 박사) ▲축산분뇨 에너지화 기술(한경대 김창현 교수) ▲축산분뇨 퇴액비의 경지 이용(국립식량과학원 이상복 박사) ▲비료품질 관리개선 방안(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이광하 과장)의 발표가 있었다.

또한 이번 기회를 계기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과 한국축산시설환경학회,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간의 상호협력과 융복합을 통해서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시켜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정광화(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윤남규(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김영일(건국대), 김기연(한양대) 총 4명이 우수 학술상을 수상했다. 🏆

농림수산물식품부는 지난 3월 26일 밤 21:00시경 충남 태안군 남면 소재 '별주부 마을' 인근에서 농림수산물식품부 농촌정책국 지역개발과 직원 7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날 숨진 지역개발과 직원은 국립식물검역원 평택출장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별주부 권역) 현장방문 후 숙소로 이동하는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